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남구 한파대책 본격화

한파 대비 건강 관리 기간 지정 방문 관리 서비스·한파 교육 실시 취약계층 방한용품 목도리 등 제공 내년 4월까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광주 남구가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과 어르신 등이 겨울철 혹독한 추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한용품과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파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겨울철 한파 대책은 한파에 취약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 4200만원을 투입해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도리를 대량 주문한 상태다.

해당 목도리는 오는 12월 초부터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주민 2800명에게 제공된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는 지난 18일부터 취약계층 및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저체온증과 동상 예방에 효과적인 장갑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내년 2월말까지 한파 대비 건강관리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방문 보건 건강관리 서비스 및 한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예산 3560만원을 들여 복지시설 이용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아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각종 시설에 난방비를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다함께 돌봄센터 7곳과 지역아동센터 46곳, 사회복지시설 2곳, 공동생활 가정 4곳이다.

으며효정책과는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광주 남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는 지난 18일 취약계층 및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방한용품인 장갑을 지원했다. **광주 남구 제공**

특히 어르신들이 초봄까지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 4월까지 경로당별로 매월 난방비 27만원을 제공한다.

남구 관계자는 “한파 취약 주민들의 경우 겨울철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이

들이다”며 “우리 이웃에 관한 관심과 보살핌이 혹독한 한파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북구, 골목길 상인회와 간담회 지원사업 안내·정보공유 등

광주 북구는 22일 관내 22곳의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1개의 상점가로 지정해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다.

북구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고, 총 22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했다.

상인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22곳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등이 참여해 북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안내와 상인회간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북구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과 운영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다양한 생활 소비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유익한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더욱 확대해 소외되는 상권이 없도록 하고 상점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다음 달까지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 지정해 총 30곳까지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서구, 장애특성별 맞춤형자리 창출 4개 분야 장애인 49명에게 제공

광주 서구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창출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무장애 착한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구는 지난 2022년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와 무장애도시주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구는 2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서구형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성과공유회는 장애인들이 행사 진행과 공연 등을 맡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일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구는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청각·언어장애인맞춤형 권리증진사업 △정리수납 일자리사업 △장애인·노인 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장애인 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에 참여한 20명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핸드벨 연주, 플라스틱 재활용 작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인 권리증진사업은 장애인 16명이 구정 정보에 대한 수어 영상 제작과 직원 대상 민원응대 수어교육을 실시했고, 정리수납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4명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 지원사업은 장애인 4명이 반찬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에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착한도시 서구는 배려가 넘치고 나눔 줄이는 도시,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도시이다”며 “서구민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존중하면서 ‘함께서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 동구 총장장학회가 지난 19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 총장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54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 총장장학회, 장학금 5400만원 쾌척

대학생 27명에 1인당 200만원

광주 동구가 5년 연속 장학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총장장학회가 올해도 54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총장장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장학금을 지원 중이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청 상

황실에서 열린 ‘2024년 총장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김백규 이사장의 사재 출연으로 관내 대학생 27명에게 개별증서와 함께 1인당 200만원씩 총 54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총장장학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총장공의 고귀한 뜻과 애국심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설립된 곳

다”면서 “총장공 김덕령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큰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 주신 김 이사장님께 존경과 감사드립니다”면서 “이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귀한 다리가 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서구, 복지관 5곳과 ‘마을로 복지관’ 업무협약

활동범위 확장...복지서비스 강화 ‘비나리’ 사업...성공 사례로 평가

광주 서구가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새로운 민관협력 복지사업인 ‘마을로 복지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복지관의 활동 범위가 인근 동으로 확장돼 취약계층 발굴 및 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됐다.

서구는 지난 1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마을로(路) 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5개 복지관별 운영 사례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은 농성

2·양·양3동을 담당해 주민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 사례관리팀 등 3개 팀을 농성동팀과 양동팀으로 나누어 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복지관 직원이 직접 동으로 방문해 700회 이상 주민을 만나고 육구 조사를 통해 시설 방문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복지관이 추진한 ‘비나리’ 사업은 이웃과 함께 비빔밥을 나눠 먹으며 주민간 화합과 소통을 촉진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다.

금호·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금호2·풍암·상무1동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지원했다.

시영·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화정3·유덕·동천동을 맡아 지역 내 마을 활동가와 주민 모임을 발굴해 고립가구를 위한 반찬 만들기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방학 기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썼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복지 문제는 행정과 복지관의 역할을 넘어 복지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로 복지관 사업이 주민속으로 더욱 깊이 스며들어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산구, 공직자 맞춤 친절 교육 민원처리 담당 직원 대상 실시

광주 광산구가 공직자의 업무 부담 해소, 대시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서구 상무지구 ‘기본좋은 극장’에서 전 부서 민원 처리 담당 직원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 공직자들은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전문강사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청·대화 기법, 민원인 응대 방법 등을 배웠다.

공직자와 강사가 함께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으로 다양한 대처법을 직접 해보기도 했다. 이후에는 함께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며 민원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성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7일에는 일반직·공무직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 설계에 도움을 주는 생애전환기 퇴직 대비 교육을 했다.

오는 12월에는 신규임용 공직자, 지난 2년간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직 생활 적응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직자들의 정서적 건강을 돌보고, 업무 능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교육이 시민에 대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직자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